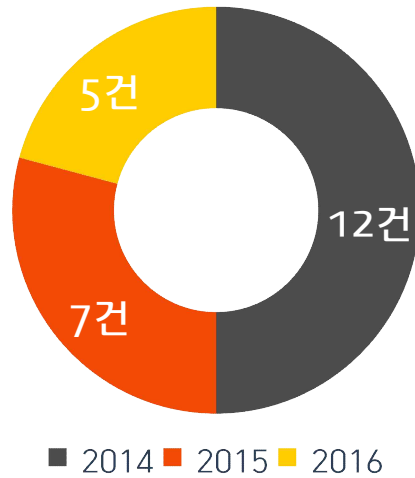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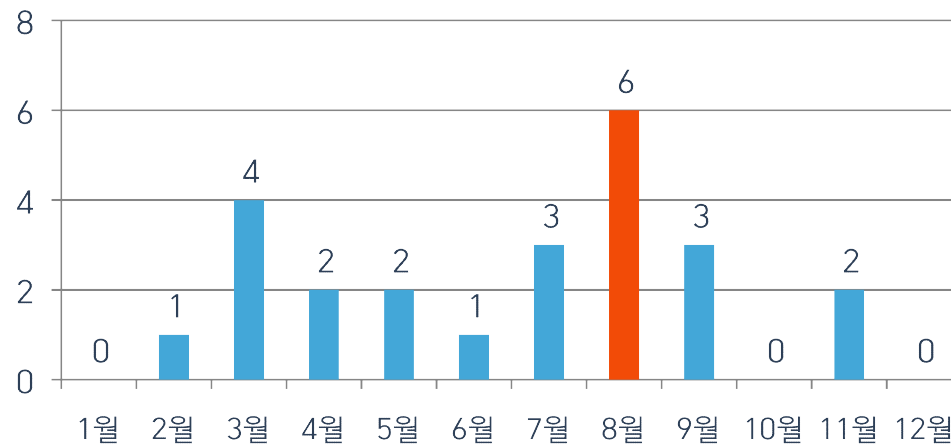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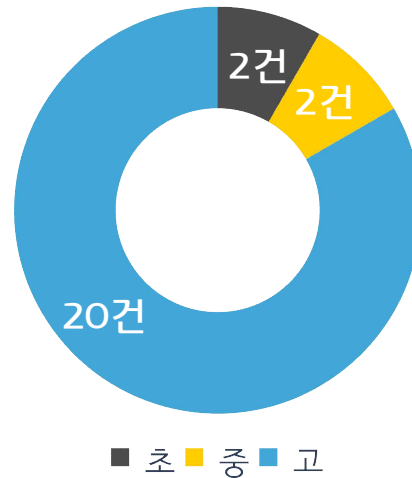


월별



급별



학교 식중독은 **매년 감소**

개학기인 3월과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,
8월이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

최근 3년간 학교 식중독 사고 24건 중
83%인 **20건**이 **고등학교**에서 발생

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대부분은 원인식품 불명

**높은 온도, 습도로 세균 증식 촉진!
여름철 식중독 발생의 요인!**

식중독 예방 3대 요령



1. 손씻기

손은 30초 이상
세정제(비누 등)을
사용하여 손가락,
손등까지 깨끗이 씻고
흐르는 물로 헹구세요



2. 익혀먹기

음식물은 속까지
충분히 익혀서 드세요
(중심부 온도가 75℃,
어패류는 85℃,
1분이상)



3. 꿀여먹기

물은 끓여서 마셔야 해요

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

✓ 식재료

- 신선한 식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구입 !!
- 열이 많이 발생하는 기구 주위에 보관하지 않기 !!

☒ 손 씻기

- 조리 전 / 생육, 생선, 계란을 만진 후에는
비누 등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!!

☒ 채소류

- 염소 소독액(식초 사용 가능) 등으로 5분 이상 담근 후, 물로 3회이상 세척하기 !!
-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하기 !!
- 세척 소독된 채소 등은 2시간 내에 사용하거나 즉시 냉장보관하기 !!

 음식물

- 음식물(채소류 포함)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조리하기 !!
- 김치는 충분히 숙성시켜 섭취하기 !!
-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, 2시간 이내에 섭취하기 !!

(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)



최근 3년('14~'16년) 화재로 인한 피해 현황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합계
유		1		1			1						3
초		2	1	1	2	3	10	12		1		3	35
중			1		1	1	5	4	2	1		2	17
고	1	4	1	3	3		4	5	3			2	26
계	1	7	3	5	6	4	20	21	5	2		7	81

- 화재로 인한 피해가 8월에 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
- 매월 실시하는 '안전점검의 날' 운영 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철저

119

화재 신고 요령

위치

주소 및 근처의 큰 건물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

상황

발생장소, 종류 등 정확한 상황 설명

환자

부상자가 있을 경우, 부상자의 상태, 실시한 응급처치 상황 설명

위험

주위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설명

유지

연락처를 남기고,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 끊지 않기

◆ 수원, ○○중학교 본관 장애인 화장실 화재 발생 (2015.2.4. 09:56경)

- ▶ 학생 : 1층 장애인 화장실 청소 도구함에서 화재 인지, 보건교사와 교육행정실에 알림
- ▶ 보건교사 : 즉시 119 신고
- ▶ 교육행정실 : 비상벨 작동 및 3분 만에 교사와 학생 1,000여명 운동장 대피
- ▶ 대처상황 : 교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 시작, 소방당국 도착 전 화재 진압 성공
- ▶ 안전훈련 : 소방대피훈련 5회, 소방관 안전교육 2회, 시청각 교육 2회 등 평소 소화기 사용과 대피요령 숙지

- ◆ 빠르고 침착한 대응 및 긴급대피, 상황보고로 위기상황 극복
- ◆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안전훈련을 몸에 익힐 수 있는 반복 훈련과 교육 강조

(출처: 재난대비 학교현장 행동매뉴얼(경기도교육청, 2017))

화재 사례

최근 10년('06~'15년) 간 기상특보 발표 현황(전국)
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호우	7	19	62	135	217	383	1,566	1,345	416	75	62	10
태풍						14	82	135	139	26		
폭염					10	13	323	305	13			

(출처: 재난안전 상황분석 결과(국민안전처))

- 8월은 호우·태풍 등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명·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
- 매월 실시하는 '안전점검의 날' 운영 시 풍수해에 대비한 안전점검 철저
- 폭염 시 행동요령 및 교육기관 조치사항 숙지

폭염 대비 건강수칙



물은 자주 마시고 !

-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, 스포츠 음료 등을 섭취 (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물을 드십시오)
- 커피 등 카페인이나 든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음



항상 시원하게 !

- 외출 시 양산, 모자 등으로 햇볕 차단
-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착용
-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
- 선풍기,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활용해 실내 적정온도를 26~28도로 유지



휴식은 충분하게 !

-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야외활동 자제
-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중간중간 그늘진 곳에서 꼭 휴식을 취할 것



매일매일 기상정보 확인하기 !

(출처: 질병관리본부)